현대소설연구(제81호)
The Journal of Korean Fiction Research
http://doi.org/10.20483/JKFR.2021.03.81.143

한국전쟁기 유항림의 「진두평」의 장르에 관한 논쟁

-소설이냐? 전투 실기냐?

배 개 화*

요약

1951년 8월 유항림은 "조선인민공화국 영웅" 칭호를 받은 진두평에 대한 소설 「진두평」을 발표하였다. 1952년 초 「진두평」에 대해서 안함광은 전투 실기에 가깝다고 평가하였다. 반면에, 이원조는 공화국 영웅을 잘 형상화한 소설로 평가했다. 1952년 7월에 열린 문예총 연구회는, 이태준과 김남천의 주도로 「진두평」이 기록성이 강한 소설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런데, 1952년 9월 초 김일성이 모스크바에서 스탈린으로부터 홀대를 받고 10월에는 한국전쟁 휴전 협상이 무기한 연기되는 상황이 발생하자, 11월 박헌영은 1925년 자신이 수립한 조선공산당이 조선로동당의 출발이라고 주장하며 김일성에게 도전하였다. 이때부터 「진두평」의 장르 문제는 남로당 계열 문학자의 반혁명 음모에 관한 문제로 바뀌었다. 11월 평론에서 엄호석은, 이원조가 전투 실기인 「진두평」을 사실주의 소설로 왜곡하여, 북한 문학자들에게 부르주아 문학 경향인 자연주의를 유포하였다고 비판하고 이원조에 대한 당의 판단을 요구하였다. 12월 15일, 김일성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에서 박헌영과 그를 지지하는 문학자들이 미제 침략자의 반동사상을 당내에 유입하여 적과 싸우는 사상 전선에 심대한 해악을 끼쳤다고 비판하고 숙청했다. 1953년 1월부터 한효는 이원조가 공화국 영웅을 '사실 그대로' 창작하라는 김일성의 지시를 왜곡하여 북한 문학자들에게 부르주아 문학 경향인 자연주의를 유포하였다고 비판하면서, 그를 사상 전선에 침투한 미제의 간첩으로 몰았다. 그러나 이후 「진두평」은 『유항림 단편집』(1958)에 수록되고, 『조선문학사; 조국해방전쟁시기

* 단국대학교 교수

』(1994)에서는 중편 소설로 분류되었다. 이러한 사실들은, 김일성이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에서 「진두평」의 장르 문제를 박헌영과 이원조와 같이 박헌영을 지지하는 문학자들을 '미제가 당에 침투시킨 반당 반혁명 분자'로 비판하고 숙청하는 데에 도구로 이용했음을 보여준다.

주제어: 유항림, 진두평, 이원조, 장르, 소설, 전투 실기, 한국전쟁, 숙청

목차

1. 유항림의 「진두평」과 '공화국 영웅' 서사의 장르 문제
2. 김일성의 지시에 따라 공화국 영웅을 형상화 한 「진두평」
3. 「진두평」의 장르에 관한 논쟁; 소설이냐? 전투 실기냐?
4. 「진두평」의 장르 문제를 이용한 남로당 문학자에 대한 숙청
5. 「진두평」을 이용한 남로당 문학자 숙청의 정당성에 대한 의문

1. 유항림의 「진두평」과 '공화국 영웅' 서사의 장르 문제

1952년 12월 15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에서 김일성이 박헌영과 그를 지지하는 남로당 계열 문학자들을 조선로동당 내부에 침투한 미 제국주의의 앞잡이이며, 이들 '반혁명적인 종파분자들에 의하여 부식되고 조장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는 사상 전선에 심대한 해독'을 끼쳐 북한의 전쟁 승리를 방해하였다고 비판하고 숙청한 것은 잘 알려져 있다.[1] 특히 김남천의 「꿀」은 김일성 계열 비평가로부터 대표적인 자연주의 문학 작품으로 비판받았으며, 남로당 계열 문학자들이 사상 전선에 침투한 미제의 간첩이라는 점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이용된 점은 잘 알려

1) 김일성, 「로동당의 조직적 사상적 강화는 우리 승리의 기초」, 『김일성 선집』 4, 재판;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54, 324-337면. 김일성의 연설에 대한 해설은 조선로동당 략사 참조;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당력사연구소, 『조선로동당략사』,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9, 379면.

져 있다.[2] 그러나 이원조가 1952년 2월에 발표한 「영웅형상화에 대하여」라는 비평에서 유항림의 「진두평」(1951.8)을 '공화국 영웅'을 잘 형상화한 소설로 평가하고,[3] 이 영웅들을 '사실 그대'로 묘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이 때문에 그가 김일성 계열 비평가들로부터 북한 문학자들에게 자연주의 경향의 소설 창작을 권장하였다고 비판받고, 사상 전선에 침투한 미 제국주의의 간첩으로 몰렸다는 사실은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4] 이 논문은 유항림의 「진두평」이 어떻게 남로당 계열 문학자들의 숙청에 이용되었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유항림은 해방 직후 평양에서 김일성을 가장 먼저 만난 문학자였으며, 한국전쟁 전까지 북조선문학예술총동맹의 작가로서 「개」(1948), 「부득이」(1949) 등의 소설을 창작하였다.[5] 한국전쟁이 시작되자 유항림은 조선인

2) 엄호석, 「우리문학에 있어서의 자연주의와 형식주의 잔재와의 투쟁」, 『로동신문』, 1952.01.17.

3)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최고 영예인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영웅 칭호를 제정함에 관하여, 1950.6.30.」, 『로동신문』, 1950.07.01. 정식 명칭은 '조선인민공화국 영웅'이다. 1950년 6월 30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조선인민공화국 영웅'이라는 칭호를 제정하였으며, 7월 15일 처음으로 전쟁에서 혁혁한 전공을 세운 인민군 전사에게 '조선 인민공화국 영웅' 칭호와 함께 훈장을 수여하였다.

4) 남한의 연구는 주로 유항림이 일제 말에 출판된 작품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해방 이후 유항림에 관한 연구 중에서 「직맹반장」(1951)을 다룬 것으로는 신형기의 「유항림과 절망의 존재론」(『상허학보』 23, 2008, 295-324면)과 오태호의 「1950~60년대 북한소설의 지배 담론과 텍스트 평가의 균열 양상 고찰-전후 복구기(1953)부터 유일사상체계형성기(1967)까지를 중심으로」(『민족문학사연구』 61, 2016.8, 311-338면), 그리고 유항림의 「개」(1946)에 대한 논문으로는 오창은의 「해방기 문인들의 이데올로기와 현실인식의 갈등 양상; '미국'에 대한 형상화와 인식의 변화를 중심으로」(『겨레어문학』 60, 2018.6, 63-95면) 『성실성에 대한 이야기』(1958)와 『대오에 서서』(1961)에 관한 연구로는 정주아, 「도착된 순정과 불행한 의식; 유항림의 해방 이후 소설과 작가 의식의 일관성」(『현대문학의 연구』, 53, 2014.6, 217-246면)가 있다. 그러나 이 논문들 중에서 「진두평」(1951)을 언급한 것은 없다.

5) 유항림은 1937년 평양에서 문예지 『단층』에 「마권(馬券)」과 「구구(九九)」를 실으면서 등단하였으며, 1930년대 후반 지식인들의 불안과 자의식을 표현한 모더니스트로 평가를 받았다. 1945년 8월 15일 조선이 일제로부터 해방이 된 후 평양에서 유항림은 최명익 등과 함께 "평양예술문화협회"를 조직하였으며, 이 협회가 "북조선문학예술총동맹"에 통합된 후에는 명실상부한 북한 문학자가 되었다. 특히, 유항림은 최명익, 오영진 등과 함께 김일성을 가장 먼저 만난 문학자였으며 보천보 전투의 영웅 김일성에 대해 호감을 가졌다 (오영진, 『소련 군정하

민군을 따라다니며 전선에서 취재한 내용을 토대로 한 「최후의 피 한 방울까지」(1950), 「누가 모르랴」(1951)와 「진두평」(1951)을, 그리고 후방 인민의 전쟁 복구 노력을 그린 「직맹반장」(1951)을 발표하였다. 이중 「최후의 피 한 방울까지」, 「진두평」 그리고 「직맹반장」은 한국전쟁기의 대표 소설로서 비평가들의 호평을 받았다.[6)]

유항림은 중조연합군의 "4차 공세[1951년 2월 11일~2월 16일]와 5차 공세[1951년 4월 21일~4월 29일] 시기에 동부 전선에 종군"하면서, 공화국 영웅 진두평과 생활을 했다. 이때 유항림은 진두평으로부터 그의 성장 과정과 한국전쟁 초기 낙동강 남쪽으로 진공할 때 그의 전투 모습을 자세히 들었고, "그의 사람 됨됨이라든가 언어 심리, 사고방식의 특징이라든가 전투 행동에서의 용감성이 어디에 있는지를 충분히 연구"하였다.[7)] 이를 바탕으로 유항림은, 진두평이 큰 전공을 세운 김포 비행장 전투(1950년 6월 28일~7월 3일)와 마산 전투(1950년 8월 2일~9월 14일)에 대한 소설을 창작하였다. 그리고 이 소설은 1951년 8월에 「진두평」이라는 제목으로 출판되었다.[8)] 이 작품은 공화국 영웅 진두평의 애국심과 영웅적 전투 행동을 묘사함으로써 한국전쟁 기간 당의 선전 노선이었던 '애국주의'를 선전한 작품이다.

1951년 2월 20일, 김일성은 초대 총정치국장 박헌영에게 인민군 전사

의 북한; 하나의 증언』, 국민사상지도원, 1952) 이런 이유에서인지 유항림은 한국전쟁 동안 북한 문단에서 김일성 계열 작가로 분류되었다. (이철주, 『북의 예술인』, 계몽사, 1966, 72면).

6) 유항림의 한국전쟁 기간 성과작은 「직맹반장」(1951)이다. 이 소설은 이후 한국전쟁 동안 발표된 공화국 영웅과 영웅적 인민들을 잘 묘사한 작품들을 모아 만든 『영웅들의 이야기』(평양: 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55)에도 포함되었다. 「최후의 피 한방울까지」는 『조선문학사』(1959, 1978)에서 호평을 받았으며, 『조선문학사: 조국해방전쟁시기』(1994)는 유항림을 한국전쟁기의 주요 작가로 자세히 소개하면서 그의 작품 「진두평」을 고평하였다.

7) 안함광, 「1951년도 문학 창조의 성과와 전망」, 『인민』 1952년 1월호; 『한국문학비평자료집; 이북편』 2, 이선영 · 김병민 · 김재용 편, 태학사, 1998, 149-150면.

8) 이 연구가 참고한 「진두평」은 『유항림 단편집』(평양; 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58)에 수록되어 있는 것이다. 단편집에 기록된 날짜를 통해서 논자는 「진두평」 1951년 8월 출판된 것으로 추측하며, 「진두평」의 신간 선전이 『문학예술』 1952년 3월호(1952.4.15)의 50면에 실린 것도 확인하였다.

와 북한 인민들의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공화국 영웅 칭호을 받은 '전투 영웅'들에 대한 선전을 강화하라는 지시하였다.[9] 2월 20일의 김일성의 지시에 따라, 총정치국과 문예총은 전투에서 큰 영웅성과 애국심을 발휘하여 큰 전과를 올려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로부터 '조선인민공화국 영웅' 칭호를 받은 인민군 지휘관들과 전사들에 대한 선전물과 문학 작품을 제작하여 보급하였다. 박헌영 지도하의 총정치국에서 출판한 공화국 영웅에 대한 선전물들은 전투 영웅의 '애국심'의 원천은 인민민주주의 제도의 우월성과 조선로동당의 올바른 지도라고 강조하였다.[10] 이것은 한국전쟁 초기, 북한 문학이 공화국 영웅들의 '애국주의'가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의 애국주의 전통을 계승한 것이며, 수령 김일성에 의해 고무되는 것으로 선전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었다.[11] 유항림의 「진두평」은 김일성이 지시한 영웅형상화 방식에 따라 진두평을 묘사하면서도, 진두평의 애국심의 원천은 당과 인민민주주의 제도의 우월성으로 제시하였다.

그런데, 1952년 초부터 비평가들 사이에서 「진두평」이 소설인지 아니면 전투 실기인지에 대한 논란이 일어났다. 엄호석과 안함광과 같은 김일성 계열 비평가는 이 작품을 기록성이 강한 '전투 실기,' 즉 전투 사실에 대한 기록으로 보았다. 반면에 남로당 계열 비평가 이원조는 「진두평」이 공화국 영웅을 잘 형상화한 '소설,' 즉 사실을 작가의 상상력과 구성력을 가미하여 산문체로 쓴 문학이라고 평가하였다. 이 때문에 「진두평」의 장르 문제가 논란이 되자, 이태준과 김남천은 7월 문예총 연구회에서 이 작

9) 김일성, 「전투영웅들을 광범히 소개선전할데 대하여, 조선인민군 총정치국 국장에게 준 지시, 1951년 2월 20일」, 『김일성 전집』 13, 평양: 조선로동당 출판사, 1995, 159-160면.

10) 「조국 해방전쟁에서 조선 인민의 아들딸들의 전선과 적 후방에서 발휘한 영웅성」, 평양: 조선인민군 총정치국, 1951.03; 「공화국 영웅들이 전투한 것처럼 적들과 싸우자」, 평양: 조선인민군 총정치국, 1951.03.16;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영웅들이 싸운 것처럼 적과 싸우자」, 조선인민군 총정치국, 1951.5,10면.

11) 엄호석, 「조선문학과 애국주의 사상」, 『문학의 전진』, 1950.8; 재수록 『현대문학비평자료집』 1, 서울: 태학사, 1993, 479-480면; 안함광, 「8•15 해방 이후 소설 문학의 발전 과정」, 『문학의 전진』, 1950.8: 재수록 『현대문학비평자료집』 1, 23-24면.

품을 기록성이 강한 '소설'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1952년 10월 정전협정이 무기한 연기되고, 박헌영이 '조선로동당'은 자신이 1925년 창건한 조선공산당을 계승한다고 주장하며 김일성의 정통성에 도전하는 일이 발생하였다.[12] 이러한 도전은 문예총 내부의 문학 논쟁을 남로당 계열 문학자의 반당 반혁명 음모에 관한 문제로 바꾸었으며, 「진두평」의 장르 문제도 예외는 아니었다. 11월 평론에서 엄호석은, 이원조가 전투 실기인 「진두평」의 장르를 소설로 왜곡하여, 일부 문학자들이 제국주의자의 문학인 자연주의를 사실주의로 잘못 알고 그런 경향의 작품을 창작하게 되었다고 비판하였다.[13] 김일성은 1952년 12월 15의 조선로동당 제5차 전원회의에서 박헌영과 남로당 계열 문학자들을 미국 침략자가 당과 사상 전선에 침투시킨 반당 반혁명 분자이자 종파주의자로 비판하고 숙청하였다.[14]

이상을 전제로 이 연구는 첫째, 「진두평」이 공화국 영웅의 애국주의를 형상화하고 선전하는 데서 김일성의 지시와 당시의 선전 노선에 어긋났는지를 살펴보고, 두 번째는 「진두평」의 장르에 관한 논쟁이 발생한 이유, 그리고 세 번째는 「진두평」의 장르 문제가 남로당 계열의 반혁명 음모로 바뀌는 과정을 살펴보겠다.

2. 김일성의 지시에 따라 공화국 영웅을 형상화한 「진두평」

한국전쟁 동안 애국주의 선전에서 애국심의 원천을 김일성으로 할 것

12) 박헌영, 「위대한 사회주의 10월 혁명 35주년-평양시 경축대회에서 진술한 보고」, 『근로자』 84, 1952.11; 재수록, 『이정 박헌영 전집』 3, 이정 박헌영 전집 원회 편, 역사비평사, 2004, 431-450면.

13) 엄호석, 「문학발전의 새로운 창조; 최근의 작품들과 그 경향을 말함」, 『문학예술』 11월호, 1952년 11월 20일, 92-93면.

14) 김일성, 「로동당의 조직적 사상적 강화는 우리 승리의 기초」, 324-337면.

인가? 아니면 인민민주주의 제도로 할 것인가? 사이에서 노선 갈등이 있었다.[15] 1950년 8월 4일 김일성은 문화선전성 장관 허정숙에게 문화선전 사업을 전쟁 승리를 보장하는 데 집중시켜야 할 것을 지시하면서, "인민군대와 인민에 대한 애국주의 교양"을 강화해야 한다고 선전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그는 항일유격대가 15년 동안 일제 침략군과 싸워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불타는 애국심과 강의한 혁명 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고 설명하면서, 항일유격대처럼 인민군대와 인민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애국주의 교양"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16] 그런데, 1950년 9월 15일 UN군의 인천상륙작전에 성공한 후 10월 2일 38선을 넘어 평양으로 진격하였다. 하지만 조선인민군은 UN군의 진격을 막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무질서한 후퇴와 군사 규율의 부재를 드러내었다. 이에, 스탈린은 김일성에게 조선로동당의 지도자들은 적절한 임무를 분담할 것과 조선인민군의 군사 규율을 강화할 것을 지시하였다.[17] UN군의 원산 점령 전날인 10월 13일, 조선로동당의 직접 지도를 받는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이 새로 수립되고 박헌영이 총정치국장이 되었다.[18] 또한 11월 중순 새 소련군사고문 라주바예프가 조선에 도착하였으며, 1951년 초부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로 하여금 당의 정치 교양 및 선전 노선을 재정비하도

15) 한국전쟁 동안 애국주의 선전 노선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는 배개화, 「한국전쟁기 북한 문학의 '애국주의' 형상화 논쟁」(『민족문학사연구』 73, 민족문학사연구학회, 2020.08) 참조.

16) 김일성, 「전시환경에 맞게 문화선전 사업을 강화하자, 문화선전상과 한 담화 1950년 8월 4일」, 202-203면.

17) "Ciphered Telegram No.75352, Feng Xi [Stalin] to Shtraus[Shtykov] and Mayveyev [Zakharov], Oct. 1, 1950," https://digitalarchive.wilsoncenter.org/document/117312.

18) 박헌영이 총정치국장이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최초의 문서는 1950년 10월 14일의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명령 제70호」이다. 이 명령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일성과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 박헌영 두 명의 명의로 내려진 것으로서 10월 13일 박헌영이 총정치국장에 임명된 것으로 보인다. 10월 21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가 조선인민군 내의 총정치국 수립을 결정하였다; 김일성, 「인민군대 내 조선로동당 단체를 조직할 데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에서 한 결론 1950년 10월 21일」, 『김일성 전집』, 제12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5, 354-360면.

록 하였다.[19] 이 일환으로, 1951년 2월 북한 최고인민회의 위원장 김두봉이 직접 선전원들에게 '인민민주주의 제도'의 우월성이 군인들과 인민들이 발휘하는 애국심의 원천이라고 선전해야 한다고 연설하였다.[20]

김일성은 1951년 2월 20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에서 "모든 군인들이 전투에서 높은 희생성과 대중적 영웅주의를 남김 없이 발휘하도록 정치 선동 사업을 활발히 진행할 것"을 말하였다.[21] 이런 회의 결과에 따라 그는 인민군 총정치국장 박헌영에게 "공화국 전투 영웅들을 광범히 소개 선전"할 것을 지시하였다. 전투 영웅 소개의 목적은 "전체 인민과 인민군 장병들을 숭고한 애국주의 사상과 백절불굴의 혁명 정신, 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념으로 튼튼히 무장시킬 수 있으며 그들을 새로운 투쟁과 위훈으로 고무 추동"하기 위해서였다.[22]

특히, 김일성은 총정치국장에게 준 지시에서 자세한 창작 지침을 제시하였다. 즉, 그는 공화국 전투 영웅들이 인민들 속에서 나온 평범한 노동자와 농민의 아들과 딸이라는 것이 묘사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기자와 작가들은 "전투 영웅들의 해방 전과 해방 후의 생활 형편과 성장 과정, 인민군대에 입대하게 된 동기,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영용하게 싸우게 된 과정을 **사실 그대로** 진실하게 쓰도록 하여야 합니다."라고 말하였다.[23] 이러한 김일성의 지시 때문에, 이후 출판된 전투 영웅에 관한 작품들은 일대기 형식, 즉 해방 전의 성장 과정과 해방 후 인민군대 입대 동기 그리고 전투에서 영웅성과 애국심을 발휘하는 모습을 시간 순서대로

19) 라주바예프, 『6·25전쟁 보고서』, 제2권, 서울: 군사편찬연구소, 2001, 78-79면.

20) 위의 글, 78-79면; 김두봉, 「인민군 각 부대 선동원 회의에서 진술한 김두봉 동지의 」, 평양: 조선인민군총정치국, 1951, 13-14면.

21) 김일성, 「조선인민군 군단군사위원제를 내오며 인민군대내 당단체들과 정치기관들의 역할을 높일데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에서 한 결론 1951년 2월 20일」, 『김일성 전집』 1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3, 155면

22) 김일성, 「전투 영웅을 광범위하게 소개 선전할 데 대하여, 조선인민군 총정치국 국장에게 준 지시, 1951년 2월 20일」, 159-160면.

23) 위의 글, 160면.

서술하는 형식을 취하게 되었다.

김일성의 지시에 따라 유항림은 한국전쟁 초기 큰 전공을 세워 '조선인민공화국 영웅' 칭호을 받은 진두평에 대한 소설, 「진두평」을 창작하였다. 제1장은, 김일성이 1951년 2월 20일에 한 지시 즉, 공화국 영웅들의 해방전과 해방 후의 생활 형편과 성장 과정 그리고 인민군에 입대한 동기를 묘사하고 그들이 평범한 조선의 아들딸이라는 점을 선전하라는 지시에 따라 진두평의 청소년 시절 및 한국전쟁 이전까지의 생활과 노동 계급 의식을 갖게 되는 과정을 묘사하고 있다. 진두평의 고향은 경상남도 통영이다. 하지만, 그가 12살(1939년)이 되던 봄에 통영 면사무소의 이민 모집 응하여 간도성 연길현으로 이주하였다. 하지만 간도에서의 생활도 통영에서와 같이 일본인들에게 수탈당하는 생활이었다. 진두평 가족은 생계를 위하여 봄부터 가을까지는 "만주척식회사"의 땅에서 쌀농사를 지었고, 겨울에는 아버지와 두평이가 벌목장에서 막노동을 하였다. 벌목장에서 정한 둘의 품삯은 "하루에 팔, 구십 전"이었지만 "실지 손에 들어오는 것은 언제나 삼십 전에 불과했다." 두평이가 14살 되던 겨울에 아버지는 다른 벌목꾼들과 파업을 하였는데, 파업 주동자로 지목되어 일본 경찰에 체포되었다. 아버지는 20일 이후에 석방되었지만 고문 후유증으로 3일 뒤 사망했다. 임종할 때 아버지는 두평이에게 "왜놈의 개는 제발 되지 말라"는 유언을 남겼다. 이후 어버지의 유언은 그의 인생의 지침이 되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연합군에 항복한 후, 진두평은 "분여 받은 땅을 다시는 빼앗기지 않겠다는 결심으로, 그리고 자기는 아버지와 같은 천대받는 일생은 보내지 않으리라는 생각으로 간도에서 군대에 입대"하였다. 진두평은 군대에서 글을 배웠고, 글자에 눈을 뜨는 것과 아울러 지금까지 막연하던 계급 의식도 점차로 명확하게 각성되어 갔다. 그 후 그는 북한으로 들어가 조선인민군 전사가 되어 훈련을 쌓았으며, 조선로동당 당원이 되었다.[24)]

제2장~5장은 김일성의 지시에 따라 진두평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영용하게 싸우게 된 과정을 사실대로 묘사하고, 그의 영웅성과 애국심은 진두평의 성격, 인민과 조국에 대한 사랑 그리고 조선로동당의 올바른 지도 때문임을 선전하였다.

첫째, 유항림은 진두평이 고산리 전투에서 60명 이상의 적을 사상하고 서북산 전투에서 적의 고지를 점령할 수 있었던 이유로 배짱이 두둑하다는 진두평의 성격적 특성을 제시하였다. 제2장의 김포비행장 전투에서 진두평은 김포의 거리에서 국군과 만난다. 그는 "탄알은 얼마든지 있다. 올테면 오라! 적 스무 놈의 목숨과 바꾼다면.....! 그만하면 피값이 되겠지." 라는 배짱으로 적이 30미터 내로 올 때까지 기다린다. 그는 적이 30미터 내로 들어오자 경기관총을 발사하여 6명의 적을 사살하고 10여 명의 적에게 부상을 입혔다.[25] 제3장의 고산리 전투에서 진두평은 백 수십 명이 넘는 미군이 돌격해오는 것을 보면서 지형을 살펴서 적이 어디까지 다가왔을 때 사격을 개시해야 좋을까 생각한다. 마침내 그는, 미군이 백오십여 미터 안으로 들어오자 다른 경기관총 사수와 함께 사격을 가해 60여 명을 사살하고 나머지에도 부상하게 만든다. 제4장의 서북산 전투장면에서 진두평은 배짱이 센 성격 덕분에 소대장과 단둘이서 적의 화점을 파악하고, 부상한 소대장을 데리고 부대로 돌아온다. 제5장의 서북산 전투 장면에서 진두평은 영웅적 전투 행동으로 두 개의 미군 화점을 수류탄으로 파괴하고 가장 높은 고지의 미군 화점을 점령한다. 작가는, 진두평이 미

24) 진두평이 만주에서 입대한 군대의 명칭은 명시되지 않았으나 '조선의용군'으로 추정된다. 진두평이 소속된 조선인민군 제6사단은 1949년 7월 말부터 10월에 걸쳐 방호산이 만주에서 북한으로 데리고 들어왔던 조선인 부대-중국인민군 제166사단-를 재편성한 것이었다; 전사편찬위원회 편저, 『韓國戰爭史 第1卷(改訂版)』, 국방부, 1977, 393쪽.

25) "때는 왔다. 넋빠진 사람처럼 서 있던 두평이의 어깨에서 경기가 움칫한다고 보인 순간에는 벌써 그의 억센 두 손에 잡히여 불을 내뿜고 있었다. 몇 방인가의 탄환이 그의 귓전을 스치고 지나갔으나 통쾌한 너털웃음과도 같이 손의 경기와 함께 그의 어깨는 그냥 너털거렸다. 당장에 여섯 개의 송장이 길에 깔렸고 다리를 끌고 달아 나는 놈, 어깨를 부둥켜 안고 달아나는 놈- 뒤에 달렸던 몇 놈만이 겨우 무사히 몸을 숨길 틈이 있었다."; 유항림, 「진두평」, 『유항림 단편집』, 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58, 199면.

군의 고지에서 날아오는 수류탄을 잡아 다른 곳으로 던지거나 발로 차면서 고지를 향해 올라가는 장면을 자세히 묘사함으로써 그의 배짱 센 성격과 영웅성을 강조한다.[26]

진두평이 영웅성을 발휘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로 인민에 대한 사랑이다. 우선, 진두평은 인천에서 만난 농군이 한 "조금만 더 빨리 오셨으면 우리 갑손이는 놈들에게 죽지 않았을거요."라는 말에 "하루라도 더 늦어지면 그만큼 애국 청년들이 더 많이 죽고 하루라도 더 빨리 진격하면 그만큼 인민의 피를 덜 흘리게 된다."라는 생각을 굳게 가지게 되었다.[27] 계속해서 진두평은 수원, 군산, 전주 등을 점령할 때마다 소위 "애국적인" 남한 청년과 주민들이 남한 경찰과 군인들에게 학살당하는 것을 목격하면서 점점 인민에 대한 사랑은 이들을 학살하는 적에 대한 복수심으로 변화함을 느낀다.[28] 만주에서 진두평은 아버지가 일본 경찰에게 맞아 죽는 것을 목격한 후 일본 경찰과 그 앞잡이인 조선 경찰들에게 복수심을 갖게 되었다. 이 복수심은 한국전쟁 중에 남한에서 조선 청년들이 남한의 경찰들-일본의 앞잡이에서 미군의 앞잡이로 변신한-에게 학살을 당하는 것을 목격한 후 남한 경찰에 대한 복수심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이 복수심은 그의 영웅적 전투 행동의 한 동력이 되었다.

진두평의 영웅적인 행동의 세 번째 이유는 고향-조국에 대한 사랑이다. 진두평은, 아버지가 고향 통영을 떠나서 북간도로 갈 수밖에 없었고, 간도서도 아버지는 뼈가 빠지도록 일했지만 끝내 왜놈들에게 매 맞아 죽은

26) 다음에 굴러 내려 오던 것[수류탄]은 왼손에 잡히였다. 잡는 그 서슬에 그는 아래를 향해 뒷손질로 내던졌다. 저 아래쪽 퍽 멀리서 수류탄은 터졌으나 그는 돌아 보지도 않았다. 계속하여 그냥 수류탄은 굴러 내려 온다. 날카로워진 그의 귀는 격침 때리는 소리는 물론이고 털썩하고 땅에 떨어지는 소리며 풀잎우를 굴러 내리는 소리며를 놓치지 않았다. 바른손에 잡히면 바른손으로 왼손에 잡히면 왼손으로-잡히는 대로 던지는 수류탄들은 여기서도 꽝 저기서도 꽝 하고 엉뚱한 곳에서 폭발했다; 위의 글, 264면.

27) 위의 글, 200-201면.

28) 특히, 군산에서 남한 경찰에 살해당한 남편의 시체 옆에서 눈문을 흘리는, 젖먹이를 업은 젊은 아내를 보면서 그는 인민의 원수에 대한 복수를 굳게 맹세한다. (위의 글, 205면)

것은 모두 나라가 없었기 때문이라며, “아버지와 같은 일생을 보내지 않기 위해서 새로운 침략자와 목숨을 걸고 싸우려고 결심”했다.[29] 진두평이 미군의 고지를 탈취하기 위한 특공대로 자원하고 혼자 힘으로 서북산 정상의 고지를 탈취할 수 있었던 것에도 고향에 대한 지극한 사랑이 있었다.[30] 추억이 가득한 고향을 폐허로 만든 침략자에게 대한 복수심은 진두평이 서북산 전투에서 혼자서 미군의 최고 화점을 파괴하고 고지를 점령하게 만들었다. 작가는 소설 끝에서, 진두평이 왼쪽 눈을 다쳐서 잘 보이지 않는 상태임에도 통영이 보이는 령마루로 올라가려고 하였다고 묘사하면서, 그의 영웅성의 원천은 고향에 대한 사랑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였다.

진두평이 세 번의 전투에서 영웅성과 용감성을 발휘할 수 있었던 궁극적 이유는 “조선로동당원”이라는 자긍심과 “당” 대한 충성심 때문이다. 진두평이 부사수와 단둘이서 김포의 노상에서 국군 20여 명과 교전할 수 있었던 것에는 “조선로동당 당원”이라는 자긍심이 있었기 때문이다.[31] 무엇보다, 진두평이 죽을 각오로 토치카 파괴조에 지원한 것도 그에게 적과 싸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준 당에 대한 충성심 때문이다:

> 그[문화부련대장]는 말을 끝내면서 파괴조 일동을 둘러 보며 할 말이 없는가고 물었다. 지금 당과 조국 앞에 중대한 책임과 명예를 지고 떠나는만큼 당과 조국에 무엇이든 요구할 것이 있으면 말하라, 그 밖에도 이

29) 위의 글, 214면.

30) 소설에서 감나무는 고향을 환기시키는 사물이다. 진두평은 마산에서 “불에 그슬려 시드는 감나무”들을 보면서 고향이 파괴되는 고통을 느낀다. (위의 글, 231면)

31) “돌격 준비, 돌격 준비!” 적들은 길 저편에 숨어서 허리 부러진 승냥이 모양으로 으르렁거리고 있다./“돌격할테면 어서 해 보라구! 입으로만 떠들지 말구!” 김 동무도 지지 않고 그때마다 대꾸한다. 김 동 무의 뒤 백 메터쯤 되는 곳에 경기를 배치하고 이번에는 김 동무를 후퇴시켰다. 그 사이에도 적들은 제자리에서 그냥 “돌격 준비!”를 웨치고 있을 뿐이다. 두 평이는 코웃음을 쳤다. **-못난 것들아! 조선로동당원의 피값을 언제나 눅으리라고는 생각지 말아라!”** (위의 글, 199면)

기회에 하고 싶은 말이 있거든 서슴치 말고 말하라, 자기는 련대장을 대표하여 동무들이 요구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힘자라는 데까지는 실현하도록 노력하겠다-이런 취지의 말을 한 명 한 명에게 악수를 하며 타이르듯이 말하는 것이다.

어떤 동무는 이번 작전이 성공하여 공을 세우는 날에는 자기를 당에 받아주기 바란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두평이는,

"우리 아버지는 왜놈들에게 억울하게 매맞아 죽으면서까지도 겨우 나더러 왜놈의 개가 되지 말라고 했을 뿐입니다. 원수와 어떻게 싸워야 한다는 것을 아버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당은 조국과 인민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하는 것과 함께 원수를 대하여서는 어떻게 싸울 것인가를 똑똑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것을 나는 언제나 당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하고, 대답하였다.(강조 인용자)[32]

이러한 문답은 조선로동당이 전쟁 승리의 영도자이자 조직자이며, 조선로동당의 교양 덕분에 진두평과 같은 평범한 농민의 아들도 한국전쟁에서 용감성을 발휘하여 영웅적인 전투 행동을 할 수 있었다는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에서 출판한 공화국 영웅에 대한 선전물의 내용과 일치한다.[33]

「진두평」에서의 애국주의의 원천에 대한 묘사는 조선인민군이 전선에서 승승장구하고 있던 한국전쟁 초기에 출판된 소설에서의 애국주의 원천에 대한 묘사와 차이가 있다. 1950년 8월과 9월에 출판된 『영웅들의 전투기』 1과 2에 실린 소설에서 조선인민군은 전쟁을 승리로 이끌라는 총

32) 인용문에서 강조한 진두평의 대답은 안함광의 「1951년 문학창조의 성과와 전망」에 인용된 것을 참조했다 (안함광, 앞의 글, 148면). 『유항림 단편집』의 수록된 것에서 이 부분은 "뭐 새삼스럽게 할 말이 별로 없습니다."(245면)로 개작되었다.

33)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은 "애국주의 이는 자기 조국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우리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장군과 **조선 인민의 승리의 조직자이며 추동자인 조선로동당**과 인민공화국에 대한 무한한 충성심을 의미한다."라고 선전하였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영웅들이 싸운 것처럼 적과 싸우자」, 조선인민군 총정치국, 1951.5.,10면.

사령관 김일성의 명령을 실행해야 한다는 각오로 전투를 돌입하며 조선 인민군은 “민족의 수령이신 김일성 장군의 그 애국적 정신과 유격 전통을 이어받은 불사불패의 군대”라는 자긍심을 갖고 영웅적인 전투 행동을 보인다.[34] 하지만 「진두평」은 진두평의 영웅성과 애국심의 원천으로 조선로동당을 제시하고 있다.

조선로동당이 전쟁 승리의 조직자이자 영도자라는 점은 당의 공식적인 선전 노선이다. 하지만, 문학 작품 속에서 당은 추상적인 존재로 제시될 수도 있고 구체적인 인격체 즉 당 위원장(수령) 김일성으로 제시될 수 있다.[35] 하지만, 유항림은 전쟁 승리의 조직자 영도자로 김일성이 아닌 조선로동당을 제시하였다. 그가 이렇게 한 것은 1950년 12월 조선로동당 제3차 전원회의 이후 북한의 선전 선동 노선의 재정비된 이후 애국심의 원천으로 조선로동당의 영도력과 인민민주주의 제도가 강조됐기 때문이다.[36]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진두평」은 공화국 영웅들의 해방 전과 해방 후의 생활 형편과 성장 과정 그리고 인민군에 입대한 동기를 묘사하고 그들이 평범한 조선의 아들딸이라는 점을 선전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영용하게 싸우게 된 과정을 사실대로 묘사하라는 김일성의 지침에 따

34) 한설야, 「격침」, 『영웅들의 전투기』 1, 문화전선사, 1950.8.25., 10-11면; 현경준, 「결사의 한강도하-영웅 김일섭 전투기」, 『영웅들의 전투기』 2, 문화전선사, 1950.9.13, 165면.

35)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한설야는 자기의 소설 「격침」에서 김일성은 “과거에도 오늘에도 유일한 조선 민족의 승리의 조직자이시며 령도자”(10면)라고 말했으며, 비평가 엄호석은 당의 사상인 애국주의는 “김일성 장군과 그의 빨치산 투쟁의 전통을 계승”하였으며, 김일성은 “애국주의 최고의 전형”으로서 “인민은 자기의 애국주의의 모범을 김일성 장군의 실제적 형상 가운데 발견하고 그로서 고무 격려되어 왔다”라고 주장하였다; 엄호석, 「조선문학과 애국주의 사상」, 『문학의 전진』, 1950.7; 재수록 『현대문학비평자료집』 1, 서울: 태학사, 1993, 479-480면.

36) 김일성은, 1950년 12월 조선로동당 제3차 전원회의에서 조선로동당이 전쟁 승리의 영도자이며 당원들에게 전쟁 승리를 위해서 영웅성을 발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것은 1951년부터 당의 사상 교양 노선이 되었으며 총정치국의 선전물에도 반영되었다; 김일성, 「현정세와 당면 과업;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에서 진술한 보고, 1950년 12월 21일」, 『김일성 선집』 3, 조선로동당출판사, 1953, 163면.

라서 진두평을 묘사하였다. 또한 1951년 초 재정비된 애국주의 선전 노선에 따라 그의 영웅성과 애국심은 인민과 조국에 대한 사랑 그리고 조선로동당의 올바른 지도 때문임을 선전하였다. 영웅의 형상화라는 점에서 이 소설은 주로 3개의 주요 전투를 중심으로 '공화국 영웅' 진두평을 잘 묘사하였지만, 구성면에서 각각의 전투 장면을 나열하여 플롯이 빈약해 보이는 것은 아쉬운 점이다. 이것은 이후 소설이냐 전투 실기냐는 논란을 일어나는 원인이 된다.

3. 「진두평」의 장르에 관한 논쟁; 소설이냐? 전투 실기냐?

이 장에서는 1952년에 발생했던 「진두평」을 둘러싼 장르 논쟁, 즉 소설이냐? 전투 실기냐에 대한 논쟁을 살펴보겠다.

김일성은 1951년 6월 30일 작가 예술가들을 직접 만나서 전쟁 승리를 위해서 작가, 예술가들에게 구체적인 창작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이 담화에서 김일성은, 문학 예술가들은 "자기들의 작품에 우리 인민이 가진 숭고한 애국심과 견결한 투지와 종국적 승리를 위한 철석같은 결의와 신심을 가장 뚜렷하게 표현"하여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작가들에게 '공화국 영웅들'의 "풍부한 감정과 인간성, 그들이 갖고 있는 고상한 사상과 신심을 그대로를 묘사"하라고 지시하면서, 영웅의 약력을 열거하는 것과 같은 작품은 독자에 대한 모독이라고 비판하였다. 또한 그는 문학 예술가들에게 전사와 인민들의 승리에 대한 신심을 약하게 만드는 자연주의적 경향과의 무자비한 투쟁을 지시하였다.[37]

이 담화는 북한 문학자들에게 전쟁기 문학예술에 대한 강령적 지침으로 받아들였으며, 영웅형상화 방법과 문예총 내부의 자연주의 문학 경향

37) 김일성, 「전체 작가예술가들에게 주신 김일성 장군의 격려의 말씀」, 『문학예술』 6월호, 1951년 7월 20일, 4-10면.

의 존재 여부에 관해서 김일성 계열과 남로당 계열 문학자들 사이에 논란이 발생했다. 1951년 10월에는 문예총 내에서 “영웅형상화에 대하여”라는 연구회는 두 계열 문학자들의 영웅의 전형 창조에 관한 관점 차이를 드러내었다. 조선로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 이원조는 북한 인민들이 발휘하는 애국심과 영웅성은 북한의 인민민주주의의 제도의 우월성과 “인민의 이익과 행복을 위한 국가적 시책,” 그리고 “항상 근로 인민들의 선두에서 올바른 지도와 전위적 역할을 노는 혁명적 당 곧 조선로동당이 있는데 기인”한다며, 이점이 영웅형상화에서 잘 드러나야 한다고 주장하였다.[38] 반면에, 문예총 위원장 한설야는 작가들에게 임순득의 「조옥희」와 같이 “영웅의 언행과 사건을 그저 나열할 것이 아니라 그 소재들을 분해하여 재구성”하여 영웅의 “깊은 내면적 세계[김일성에 대한 충성심]를 보여주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현덕의 「아름다운 사람들」과 같이 주인공 백기락 영웅이 부상 당한 사실을 기록주의적으로 나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39]

1952년 초에도 영웅형상화에 대한 논쟁은 계속되었으며, 김일성 계열과 남로당 계열 문학자들의 의견 충돌은 계속되었다. 가장 먼저, 영웅을 형상화한 작품의 장르 문제를 제시한 사람은 엄호석이었다. 엄호석은 1952년 1월 17일 『로동신문』에 게재한 「우리 문학에 있어서의 자연주의와 형식주의 잔재와의 투쟁」에서 김일성이 1951년 6월 자연주의적 경향과 투쟁할 것을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작가들과 시인들은 “1) 「전투 실기」라는 이름 밑에 실지 일어난 사건 그대로 전투 장면을 소란한 음향으로써 기록하며 그의 걸어온 반생을 이력서와 비슷하게 실지 일어난 그대로 번다하게 나열한 결과, 2) 사건을 비속한 것으로, 생애를 고난의 눈물로 되게 하고 있다. 3) 영웅을 쓴 허다한 작품 가운데서 몇몇 작품을 제외하고서는 적지 않은 작품이 크나 적으나 이러한 소박한 기록주의적 수법

38) 「영웅형상화에 대한 문제-문예총 영웅형상화에 대한 연구회에서」, 『로동신문』, 1951.10.29.
39) 위의 글.

에 의한 자연주의 경향이다."이라고 비판하였다.[40] 이 말의 요지는 '전투 실기'의 형식을 띤 작품들은 기록주의 수법에 의한 자연주의 경향이라는 것이다.[41]

안한광은 유항림의 「진두평」을 공화국 영웅의 성격을 성과있게 창조한 작품이라고 칭찬하면서도, 전투 실기라고 보았다. 안함광은 "유항림의 「진두평」은 공화국 영웅을 묘사하는 사업에 있어서 자기의 성과를 주장할 수 있는 작품 중의 하나"라고 긍정하면서도, "구성에 있어서는 보다 많이 전투 실기적 형식"인 점은 문제라고 비판하였다. 다시 말해, 「진두평」은 "주인공의 과거 생활과 그가 겪어온 몇 개의 전투를 평면적으로 제시하였으며, 소설 형상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가지는 허구의 역할을 충분히 발동시키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이 작품은 구성에 있어서 "유기적 결구성이 부족"하며 "진두평 이외에 그와 관계하며 또는 관계할 수 있는 인물들을 살리는 데에는 많은 제한성"을 가져 왔으며, 이것은 주로 "이 작품이 구성에 있어서 전투 실기적 형식"을 취하였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42]

반면에, 이원조는 영웅형상화 문제에 대하여」(『인민』 1952년 2월호)라는 비평에서 「진두평」이 전투 영웅을 잘 형상화한 소설로 보았다. 그는 1951년 6월 30일 김일성이, 문학 예술가들은 작품에서 "우리 민족이 과거와 현재를 통하여 발휘하고 있는 숭고한 애국심을 보여 주어야" 한다고

40) 엄호석, 「우리 문학에 있어서의 자연주의와 형식주의 잔재와의 투쟁」, 『로동신문』, 1952.01.17.

41) 엄호석은 자연주의를 '사실을 기록한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자연주의'에 대한 이해는 루카치가 에밀 졸라가 자연주의의 기치하에 「나나」, 「목로주점」에서 개인의 불행의 원인을 사회적 모순-계급 갈등-이 아닌 한 가문의 생리와 유전의 문제로 왜곡했으며 현실을 전체가 아닌 파편으로 묘사하였다고 비판한 것과는 거리가 있다; 루카치, 『문제는 리얼리즘이다』(1938), 홍승용 번역, 서울: 실천문학사, 1985, 72-110면. 기석복도 「우리 평론에 있어서 몇 가지 문제」에서 엄호석이 사실을 묘사하면 자연주의라고 비난하고 있는데, 이것은 리얼리즘의 비속화를 자연주의와 혼동한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기석복, 「우리 평론에 있어서 몇 가지 문제」 1, 『로동신문』, 1952.2.28.

42) 안함광, 「1951년도 문학 창조의 성과와 전망」, 149-150면.

지시한 것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공화국 영웅들”에 대한 작품을 써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 이유는 공화국 영웅은 “조선 인민이 가진 숭고한 애국심의 가장 전형적인 체현자”이기 때문에 이들을 묘사하는 것은 “조국해방전쟁의 승리”를 위한 “조선 인민의 애국심”을 고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43] 그러나 문학에서 영웅 형상화 문제가 충분치 않은 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 첫째 한가지 사실로 들어야 할 것은 이미 공화국의 영웅 칭호를 받은 영웅들이 지금 현재로서 전선과 후방을 통하여 3백여명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문학예술에서 이러한 영웅들을 작품상으로 형상화한 것은 아직 그의 10%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그 동안의 리유 여하를 불문하고 우리 문학예술이 조선 인민의 애국심을 표현한다고 하면서도 그 애국심의 전형적이며 구체적인 사실에 대하여 아직도 등한하였다는 것을 변명할 수 없을 것이다.[44]

이원조는, 작가들은 공화국 영웅의 애국심이 북한의 인민민주주의 제도에 근거한 것이며, 조선로동당이 전체 인민을 승리로 고무 추동하였다는 점을 표현해야 하며, 이것이 공화국 영웅의 전형이라고 주장하였다.[45] 이런 기준에서 그는, 1951년에 발표된 영웅 김창걸에 대한 임화의 시 「흰 눈을 붉게 물들인 나의 피 위에」와 영웅 백기락에 대한 소설인 현덕의 「하늘의 성벽」, 임순득의 「조옥희」, 유항림의 「진두평」이 비교적 우수한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영웅의 일면적인 모습만을 묘사하였음을 지적하였다. 이런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김일성이 “그들(영웅들-필자)의 풍부한 감정과 인간성, 그들이 갖고 있는 사상과 신심 그대로(방점-필자)를 묘

43) 이원조, 「영웅형상화 문제에 대하여」, 『인민』 2월호, 평양: 민주조선사, 1952.2, 123-128면.
44) 위의 글, 124면.
45) 위의 글, 124면.

사한다면 오늘날의 우리 공화국의 영웅들이 될 것입니다"[sic]라고 지시한 것처럼 "영웅의 인민성과 영웅의 내면생활과 인간적 장성과 영웅적 행동을 왜곡하지 않으며 완전하게 표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46]

1952년 초만 하여도 김일성과 모택동은 전쟁의 계속을 바라는 스탈린의 의견을 무시하고 UN군과 정전을 하기로 거의 의견 일치를 이뤘다. 그런데, 4월 22일에는 모택동이 전쟁을 계속하기를 바라는 스탈린의 의견에 찬성하여, 정전 담판의 연기를 김일성에게 통보하였다.[47] 모택동과 스탈린에 의해 김일성의 조속한 정전 실현 의지가 좌절되는 상황이 발생하자, 문예총 위원장 한설야는 한국전쟁 초기의 강도로 김일성의 권위를 강조하였다. 한설야는 「김일성 장군과 함께 발전하는 조선문학」(문학예술 4월호, 1952.5.5.)에서 김일성이 1951년 6월 30일의 담화에서 문학 예술가들에게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인민군의 영웅적인 전투와 승리의 모습을 인민들의 머리에 구체적인 형상으로 심어주어야 한다고 말했음을 환기한다. 그러면서 그는 공화국 영웅의 전형을 가장 잘 표현한 예로 김일성의 담화를 제시하고 이 담화처럼 창작할 것을 주장하였다:

> 장군은 극히 간단 명료하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
>
> "내 하나의 실화를 이야기 하겠소. 어떤 부대가 하루의 가렬한 고지 쟁탈전에서 발벗고 싸워 그 날도 역시 이겼소. 전투가 끝난 뒤에 부대장이 전사들을 방문했소. 그 때 전사들은 혹은 독서 하고 혹은 무기를 닦고 있었소. 다음 전투를 준비하고 있은 것이요. 그 때 부대장이 전사들과 악수하면서 무슨 요구할 것이 없느냐고 물었소. 그런즉 전사들은 말하기를 「없소, 최고 사령관께서 건재하시기를 비오. 그것을 전달해 주오. 그것 뿐이오.」 -이렇게 대답했소."[48]

46) 위의 글, 124면.

47) 김동길, 「휴전협상에서 북・중・소 3국의 태도 변화 및 결과」, 『한국과 국제정치』, 제35권 제3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19, 52-57면.

48) 한설야, 「김일성 장군과 문학예술」, 『문학예술』 4월호, 1952.05.05.; 재수록 『한설야 선집 14:

그런데 한설야가 인용한 대화는 유항림의 「진두평」에서 토치카 파괴 작전을 개시하기 직전에 진두평이 문화 부연대장과 한 대화와 유사함을 알 수 있다. 둘의 차이점은 무슨 요구할 말이 없느냐는 질문에 진두평은 자신을 훌륭한 로동당원이자 전사로 교양해준 "당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했다면, 김일성 담화의 전사는 "김일성의 건재함에 대한 기원"을 말했다는 점이다.[49] 한설야가 김일성의 담화를 인용한 뜻은 공화국 영웅들의 애국심과 영웅성을 고취하는 주체가 조선로동당이라는 추상적인 존재가 아니라 조선로동당의 위원장이자 조선인민군 총사령관인 김일성이라는 구체적인 인물로 제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1952년 7월 16일에는 유항림의 「진두평」의 장르 문제-전투 실기인지 아니면 소설인지-를 토론하기 위한 문예총 연구회가 개최되었다.[50] 연구회에서 작가들은 토론을 통해서 「진두평」을 기록성이 강한 '소설'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우선, 작가동맹 서기장 김남천은 「진두평」이 "실재의 인물인 주인공을 통하여 제1차 진격에 있어 제6보사[보병 사단]의 투쟁을 묘사한 작품"으로서 인물, 사건, 장면을 분석하여 보면 성공한 작품이라고 볼 수 있다고 평가하고, 진두평의 장르 문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이 작품은 전기는 아니다. 전기라면 그의 생애 전체를 서사의 주로 하고 그려야 할 터인데 그렇지는 않다. 그러면 투쟁 실기냐? 투쟁 실기는 하나의 기록이다. 그러면 무엇인가? 우리 문학의 특징의 하나인 **'전기성'과 '기록성'이 농후한 소설**이다."[51] 한마디로, 김남천은 이원조와 같이 「진두평」을 소설로 분류하였다. 소설 분과 위원장인 최명익도 김남천의 보고를 지지하면서 "기록적 가치를 높이 평가해야 할 우리 문학에 있어서 작품이 기록적이라고 해서 얕게 평가하는 것은 좋지 못하다고 생각

수필』, 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60, 17면.

49) 이 때문인지 1958년 『유항림 단편집』에 수록된 「진두평」에서는 진두평의 응답이 "뭐 새삼스럽게 할 말이 별로 없습니다."로 수정되었다 (245면).

50) 「물의를 일으킨 장르문제-"진두평" 합평회」, 『문학예술』 9월호, 1952년 9월 20일, 100-103면.

51) 위의 글, 101면.

한다."라고 말하였다.[52] 작가동맹위원장 이태준은 「진두평」이 "장르 문제를 일으킬 정도로 형상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할 수 있다. 사실에 충실하려는 작가의 태도는 좋으나 구성에 있어 역시 예술적 형상을 고도로 높여야 할 것이다. (…) 그러나 영웅을 이렇게 작품으로 형상화한 것은 많은 의의가 있다."라고 결론을 내렸다.[53]

전투 실기(혹은 실화)는 전투 장면을 '기록'한 것이다. 그러나, 유항림은 「진두평」에서 단순히 전투 장면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진두평을 통해 '공화국 영웅'의 전형적 성격을 창조하고자 하였으며, 성격과 전투 묘사에서 사실뿐만 아니라 상상-허구도 활용하였다. 이런 점 때문에 이원조를 비롯하여 7월 합평회에 참석한 대부분의 작가들이 이 작품을 전투영웅을 형상화한 소설이라고 평가한 것처럼 1994년의 북한문학사에서도 "공화국 영웅 진두평의 원형에 기초하여 전선 영웅들의 성격적 특징을 전형화"한 중편 소설로 평가하였다.[54]

4. 「진두평」의 장르 문제를 이용한 남로당 문학자에 대한 숙청

1952년 초 김일성이 전쟁의 지속을 바라는 스탈린의 의견을 무시한 채 정전 협상을 조속히 타결하려고 하면서 「진두평」의 문학 논쟁이 정치 파벌들의 정치적 대리전으로 변모했다. 특히 1952년 10월에는 정전협정이 무기한 연기되고, 11월에는 박헌영이 김일성의 정통성에 직접 도전한 사

52) 위의 글, 102-103면.

53) 위의 글, 103면.

54) 리선녀, 리근실, 정명옥, 『조선문학사: 조국해방전쟁시기』 11,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4, 134-135면. 「진두평」은 1959년의 『조선문학사』와 1978년의 『조선문학사』에서는 언급되지 않았다. 그러나 1994년 『조선문학사』는 「진두평」에 대해 "소설은 조국해방전쟁이 낳은 실재한 전투 영웅을 원형으로 하여 조선인민군 영웅 전사의 사상, 정신적 특질을 중편 형식으로 재현한 첫 작품"(135면)이라고 평가하고, 그 내용이 자세히 소개했다.

건은, 김일성이 문예총 내의 문학 논쟁을 박헌영을 대변하는 문학자들의 반당, 반혁명 음모의 일환으로 인식하게 만들다. 결국, 이것은 김일성이 1952년 12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에서 박헌영과 남로당 계열 문학자들에 대한 숙청하는 것으로 귀결되었다.

1952년 9월 4일, 김일성은 포로 문제를 해결하고 조속한 정전 협정 체결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모스크바에서 스탈린과 회담을 하여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스탈린의 반박에 김일성은 자신의 주장을 굽히고 결국 전쟁을 계속하기로 동의하였다. 그 결과, 10월 8일부터 정전 협상은 무기한 휴회에 들어갔으며, 교전선에서 전투는 재차 가열되었다.[55]

전쟁의 지속 여부를 둘러싸고 김일성이 모택동과 스탈린 모두로부터 부정당한 상황이 만들어지자, 박헌영은 김일성의 권위에 직접 도전하였다. 1952년 11월 12일, 박헌영은 소련의 10월 혁명 기념 연설에서 "10월 사회주의 혁명의 직접적 결과로서 맑스-레닌주의 사상적 토대 위에서 1925년 조선공산당이 창건되었다"고 밝히면서, 조선로동당은 자신이 조직한 조선공산당을 계승하였음을 주장하였다.[56] 이는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을 조선로동당 역사의 시작으로, 동시에 김일성을 조선로동당 창시자로 주장하는 김일성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었다.[57]

이러한 도전은 문예총 내부의 문학 논쟁을 남로당 계열 문학자의 반당 반혁명 음모에 관한 문제로 바꾸었으며, 「진두평」의 장르 문제도 예외는

55) 김동길, 앞의 글, 52-57면.

56) 박헌영, 「위대한 사회주의 10월 혁명 35주년-평양시 경축대회에서 진술한 보고」(『근로자』 84, 1952.11), 431-450면.

57) 이러한 내용은 1949년 12월 조선인민군을 대상으로 한 정치 교양 자료인 「김일성장군의 영웅적 빨치산 투쟁」(민족보위성 문화훈련국, 1949.12)에서 확인된다. 이 자료는 1935년 결성된 조국광복회는 재만조선인의 통일전선일 뿐만 아니라 국내의 투쟁에도 영향을 주었고(22-27면), 조선인민군은 김일성 장군의 빨치산 부대의 전통을 계승하였으며, 김일성 장군이 직접 창건하고 지도하고 있다고 선전하였다(33면).

아니었다. 11월 15일 문예총의 소설 합평회에서 전투 영웅을 형상화한 현덕의 「첫 전투에서」(『문학예술』 1952년 10월호)가 "전투기로서 실패한 자연주의 작품'이라는 비판을 받았다.[58] 또한 엄호석은 「문학예술의 새로운 창조』라는 비평에서 7월 합평회에서 소설로 결론이 난 「진두평」의 장르 문제를 다시 제기하고 이원조가 작가들에게 기록주의와 자연주의 문학 경향을 유포하였다고 비판하였다.[59] 엄호석은 "일부 작가들의 주제들은 천편일률로 인민군대 전사들의 용감성에만 국한"되었고, 한국전쟁 기간 인민군대를 통해서 본 "새 인간들의 성격과 도덕" 그리고 "애국주의"와 같은 새로운 정신적 면모가 묘사되지 못하였다고 평가하였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는 모두 이원조의 잘못된 지도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 더우기 [이원조와 같이] 영웅을 형상화하라고 작가들에게 권면하면서 실재의 공화국 영웅들만 주인공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듯이 호소한다면 그것처럼 우둔한 일은 없다. 공화국 영웅들이 3백여 명에 달하는데 작가들이 아직 적게 밖에 쓰지 못하였다고 비난한다면 그것은 더욱 어리석은 망발일 수밖에 없다. 이 견해대로 한다면 소설의 인물로 될 수 있거나 없거나를 막론하고 공화국 영웅이면 모두 형상화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 견해는 소설을 전투 실기와 대치시키며 작가들을 기록의 노예로 되게 하는데 밖에 도움이 될 것이 없다.**(강조 인용자)[60]

이처럼 김일성 계열 문학자들은 남로당 계열 문학자들이 1951년 6월 30일의 김일성 담화를 충실히 따르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기록주의적이고 자연주의인 창작 경향을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들이 '당 문학'

58) 「자연주의적 잔재-현덕 작 "첫 전투에서"에 대하여」, 『문학예술』 1월호, 1953.1, 106-109면; 한국전쟁기 현덕의 문학이 남로당 숙청에 이용된 것에 대한 연구는 배개화의 「한국전쟁 동안의 현덕과 그의 소설」(『한국현대문학연구』 61, 한국현대문학회, 9-42면)을 참조.

59) 엄호석, 「문학발전의 새로운 창조; 최근의 작품들과 그 경향을 말함」, 92-93면.

60) 위의 글, 93면.

노선을 이탈한 것에 관한 당의 판단을 요구하였다.

1952년 10월 중조연합군과 UN군의 정전 회담이 무기한 휴회에 들어가면서 문학계 내부에서 김일성 계열과 남로당 계열 간의 대립이 날로 격화되고, 심지어 박헌영이 직접 나서 김일성의 항일운동을 격하하고 조선노동당이 김일성의 조국광복회를 계승했다는 주장을 부정하자, 김일성은 문예총과 문화선전 분야에서 박헌영을 대변해온 남로당 계열 문학자들을 숙청할 것을 결심하였다. 그 이유는, 김일성이 문예총 내의 문학 논쟁을 양 파벌 문학자들이 대리한 정치 투쟁으로, 그리고 1952년 11월 박헌영이 김일성의 정통성에 도전한 것을 반당 반혁명 음모로 인식했기 때문이다. 1952년 12월 15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에서 김일성은, 박헌영과 그를 지지하는 남로당 계열 문학자들이 미제 침략자의 반동사상을 당내에 유입하여 적과 싸우는 사상 전선에 심대한 해악을 끼쳤으며, 부르주아 사상과 종파주의로 당을 사상적 조직적으로 약하게 만들어 북한의 전쟁 승리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숙청을 단행하였다. 동시에 김일성은 "당과 조국과 인민을 위한 고상한 사상"을 가지고 "조국 전쟁 승리를 위하여 집중"하여야 한다면서 자신을 중심으로 한 애국주의 선전이 전쟁 승리의 원동력임을 강조였다.[61]

1953년 1월 3일부터 조선로동당 제5차 전원회의에 대해 학습하고 당과 사상전선에 침투한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이 끼친 해악과 투쟁하는 캠페인을 벌였다.[62] 김일성 계열 문학자들 역시 문예총 내에서 반당반혁명종

61) 김일성, 「로동당의 조직적 사상적 강화는 우리 승리의 기초: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에서 한 보고, 1952년 12월 15일」, 334면.

62) 1953년 1월 3일 『로동신문』의 사설, 「우리 당 내에는 두 개의 규률이 있을 수 없다」는 조선로동당이 조국해방전쟁의 종국적 승리에로 인민들을 조직 추동하기 위하여 "각개 당원은 당의 사상적 통일과 조직적 단결의 강화를 위하여 자유주의적 행동과 종파주의적 잔재로부터 흘러나오는 일체의 불량한 경향들을 제때에 폭로, 제지하여야 한다."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전국의 하급 당 단체들은 열성자 대회를 열고 자유주의, 종파주의 잔재를 비판, 자기 비판하는 캠페인을 벌였다.

파분자들과 무자비한 투쟁을 벌여야 한다는 김일성의 지시에 따라서, 그들이 미제의 간첩이자 부르주아 문학자임을 본격적으로 비판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이원조의 영웅형상화와 「진두평」에 대한 비평은 남로당 계열 문학자에 대한 반대 캠페인의 중요한 소재가 되었다. 예를 들어, 한효는 「자연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에 있어서의 조선문학」에서 이원조의 「영웅형상화에 대하여」에 관해서, "최근 우리 문학에는 자연주의의 가장 특징적인 표현인 기록주의를 리얼리즘과 대치시키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 경향은 특히 영웅을 형상화하는 문제에서 "영웅 전기를 소설로서 평가"하는 것에서 표현되었다고 비판하였다:

> 영웅형상화의 문제에 대하여 평론가 이원조 동무는 작가들에게 실재적인 영웅들을 그릴 것을 권고하고 그것이 마치 우리 문학의 "가장 기본적이고 전반적인 문제"인 듯이 말하면서 "이미 공화국의 영웅 칭호를 받은 영웅들이 지금 현재로서 전선과 후방을 통하여 3백여 명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문학예술에서 이러한 영웅들을 작품상으로 형상화한 것은 아직 그의 10%에도 달하지 못하고 있다"(잡지 인민 1952년 제2호)고 썼다. 그리고 그는 또한 계속해서 "영웅을 형상화한 작품들이 우선 양에 있어서 이와 같이 부족"한 것은 "영웅에 대하여 작가 예술가들이 거의 돌아보지 않았다고 할만"하다고 하였으며 그리하여 그는 명백한 **영웅전기인 유항림 작 「진두평」**을 "영웅을 형상화한 작품으로서 비교적 우수한 작품으로 치는" 그런 작품들 중 하나로 인증하였다.[63]

이어서 한효는 이원조의, 북한 문학이 영웅을 10%로밖에 묘사하지 못했다는 말은 "작가들을 기록적 사실과 실증 문헌의 노예로 전락시킬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을 내포한 주장"이며, 이로 인해서 "일부 작가들은 은폐

63) 한효, 「자연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에 있어서의 조선문학」 1, 『문학예술』, 제6권 제1호, 1953.1, 120-121면.

된 자연주의인 기록주의를 사실주의로 오인하며 인간 정신의 기사로서의 자기의 고상한 창조적 역할을 망각하는 경향에까지 빠지게 되었다"라고 주장했다.[64]

이를 근거로 한효는 "자연주의자들은 남조선에서 미국 침략자들과 그 주구를 반대하는 근로자들의 투쟁에 대하여 로골적으로 적대적 태도"를 취하였으며, 북한에서는 "그 독소를 북조선 인민에게 뿌리는 것을 자기들의 중요한 임무"로 하였으며, 이들의 뿌린 자연주의의 독소는 "공화국 영웅을 형상화하는 중요하고 영예스러운 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작가들이 기록주의의 함정에 떨어져서 전형화를 거부"하는 것으로 그 해악을 드러내었다고 비판하였다.[65] 그러면서 한효는 김일성의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에서의 지시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 이원조와 같이 '사상 전선에서 제국주의자들의 사상적 침해를 시도'하는 것에 대한 투쟁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66]

1953년 1월부터 시작된 남로당 계열 문학자에 대한 반대 캠페인에서 이원조의 「영웅형상화에 대하여」라는 비평과 특히, 진두평을 공화국 전투영웅을 잘 표현한 소설이라고 평가한 것은 그가 사상 전선에 침투한 미제국주의의 간첩이라는 증거로 선전되었다. 이것들은 또한 1953년 8월 이원조가 이승엽 등 남로당 계열의 11명과 함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64) 위의 글, 121면.

65) 한효, 「자연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에 있어서의 조선문학」 3, 『문학예술』, 제6권 제3호, 1953.3, 136면. 한효는, 이원조가 「진두평」이 "있는 그대로"의 추구에서 한 걸음도 벗어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조선 인민의 애국심을 "사실적 실증에서 보여주는 것"(인민 1952년 2월호)이라고 긍정하였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평가는 영웅들의 "풍부한 감정과 인간성, 그들이 갖고 있는 사상과 신심 그대로를" 묘사하라고 한 김일성의 말을 옳지 못하게 해석하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한효는, 이원조가 "사실주의 예술에 있어서 당성이 발현되는 기본 분야인 전형성의 원칙"에 관한 김일성의 말을 그릇 해석하여, 전형성을 "있는 그대로의 현상을 왜곡하지 말며 완전하게 묘사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함으로써 일부 작가들을 기록주의의 함정에 빠뜨렸다고 비판하였다; 위의 글, 150-151면.

66) 위의 글, 153면.

전복 및 미 제국주의 간첩 혐의로 재판을 받을 때도 증거로 활용되었다.[67]

5. 「진두평」을 이용한 남로당 문학자 숙청의 정당성에 대한 의문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1952년 초 안함광이 「진두평」을 '전투 실기'라고 비판한 반면에, 이원조는 이를 공화국 영웅을 잘 형상화한 '소설'이라고 평가한 것은 이후 문예총 내부에서 「진두평」에 대한 장르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이후 1952년 10월 한국전쟁 휴전 협정의 무기한 연기된 후 박헌영이 김일성의 권위에 도전하자, 1952년 12월 김일성은 「진두평」의 장르 논쟁을 반당반혁명음모의 일환으로 왜곡하여, 박헌영과 남로당 계열 문학자들을 조선로동당과 사상 전선에 침투한 미제국주의의 간첩으로 몰아 숙청하였다.

그러나, 한국전쟁 기간 공화국 영웅에 대한 북한의 문학은 "실기"(實記) 혹은 실화(實話)적 성격이 강했으며, 한국전쟁기 김일성 계열 문학자들은 공화국 영웅 칭호를 받은 인민군 군관들과 병사들에 전투기에 대해 일관성 없는 비평 태도를 보였다. 이원조가 전기성과 기록성이 강한 문학 창작을 권장하였다고 비난했던 엄호석은 1950년 8월 「조선문학과 애국주의 사상」에서 문학자들은 전사와 인민들에게 애국주의 사상을 고취하기 위해서 애국주의의 전형인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에 대한 전기(傳記)를 창작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전기는 "문학과 가장 가까우며 문학적 형상이

67) 1953년 8월 재판에서, 이원조는 선전선동부 부부장으로서 남한의 유격대 활동의 성과를 과장하였으며, "문예총을 남북으로 분열시키고, 북한 출신 작가들의 계급적 문학 활동을 억압하였다"고 기소되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최고 재판소, 「미제국주의 고용간첩 박헌영 리승엽 도당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권 전복음모와 간첩사건 공판 문헌」, 국립출판사, 1956, 322-323.

훌륭하게 그 속에서 살 수 있는 장르"라고 합리화하였다.[68] 또한 「진두평」의 전기적 성격은, 1951년 2월 김일성이 영웅의 성장 과정부터 현재의 영웅적 행적까지의 묘사를 통해서 그의 영웅성의 원천을 설명하라고 지시한 것을 따른 것이다.

무엇보다 아이러니한 것은 「진두평」은, 김일성 계열 문학자로부터 전기성과 기록성이 강한 "전투 실기"라고 비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958년 출판된 『유항림 단편집』에 수록되었다는 사실이다. 또한, 1994년 출판된 『조선문학사』는 한국전쟁기의 산문문학을 소설, 수필/수기, 전투 실화, 종군기 그리고 예술적 정론 등으로 구분하고, 유항림의 「진두평」에 대해서는 "공화국 영웅 진두평의 원형에 기초하여 전선 영웅들의 성격적 특징을 전형화"한 중편 소설이라고 평가하였다.

또한 엄호석이 자신의 평론에서 공화국 영웅들을 묘사할 때 사실을 충실하게 묘사하면 기록주의이고 따라서 자연주의라고 비판한 것은 '자연주의'를 오해한 것이다. 굳이 루카치를 소환하지 않더라도, 이미 당대에 기석복-북한에 소련 문학을 소개한 조선계 소설인-은, 엄호석이 말하는 자연주의는 사실은 '비속한 리얼리즘'에 해당한다고 비판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호석 그리고 다른 김일성 계열 비평가들이 이원조가 「진두평」을 고평하여 문예총에 자연주의를 유포한다고 비판한 것은 영웅의 성격 형상화가 정치적 논쟁점을 내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북한 문학자들은 공화국 영웅의 전형을 묘사하여야 하며, 이때 공화국 영웅의 영웅적 전투 행동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동을 추동한 영웅의 내면적 동기도 묘사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하였다. 그러나 그 내면적 동기, 즉 애국심을 조선로동당이라는 추상적 존재로 묘사할지 아니면 수령 김일성으로 묘사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었다. 이원조는 당의 선전선동부 부상으로서 1951년 재정비된 애국주의 선전에 충실하게 당과 인민민주주의

68) 엄호석, 「조선문학과 애국주의 사상」, 『문학의 전진』, 1950.8; 재수록 『현대문학비평자료집』 1, 서울: 태학사, 1993, 480면.

의 우월성을 애국심의 원천으로 묘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결론적으로, 1952년 「진두평」의 장르 논란은 사상 전선에서 벌어진 김일성과 박헌영의 정치적 대리전의 하나였으며, 김일성이 박헌영과 남로당 계열 문학자들 '미제국주의의가 당과 문화 전선에 침투시킨 반당 반혁명분자'로 비판하고 숙청하는 데에 도구로 이용되었다. 그러나 이후에 작가 본인뿐만 아니라 북한의 문학사가들은 「진두평」을 소설이라고 평가하였다. 이러한 사실들은 진두평에 대한 이원조 및 다른 남로당 계열 문학자들의 평가가 정당하였음을 보여준다. 동시에, 이는 남로당 계열 문학자들이 '미제국주의가 당과 문화전선에 침투시킨 반당반혁명분자'라는 낙인의 정당성에 대한 깊은 의문을 불러일으킨다.

| 참고문헌 |

1. 1차 자료

김일성, 「로동당의 조직적 사상적 강화는 우리 승리의 기초」, 『김일성 선집』 4, 재판;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54.

김일성, 「전체 작가예술가들에게 주신 김일성 장군의 격려의 말씀」, 『문학예술』 6월호, 1951년 7월 20일.

김일성, 「전투영웅을 광범위하게 소개 선전할 데 대하여, 조선인민군 총정치국 국장에게 준 지시, 1951년 2월 20일」, 『김일성 전집』 13, 평양: 조선로동당 출판사, 1993.

김일성, 「조선인민군 군단군사위원제를 내오며 인민군대 내 당단체들과 정치기관들의 역할을 높일데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에서 한 결론 1951년 2월 20일」, 『김일성 전집』 1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3.

박헌영, 「위대한 사회주의 10월 혁명 35주년-평양시 경축대회에서 진술한 보고」, 『근로자』 84, 1952.11; 재수록, 『이정 박헌영 전집』 3, 이정 박헌영 전집 편집위원회 편, 역사비평사, 2004.

안함광, 「1951년도 문학 창조의 성과와 전망」, 『인민』 1월호, 1952.1; 재수록, 『현대문학비평자료집』 2, 이선영 · 김병민 · 김재용 편, 서울: 태학사, 1993.

엄호석, 「문학발전의 새로운 창조; 최근의 작품들과 그 경향을 말함」, 『문학예술』 11월호, 1952.11.20.

엄호석, 「우리문학에 있어서의 자연주의와 형식주의 잔재와의 투쟁」, 『로동신문』, 1952.01.17.

엄호석, 「조선문학과 애국주의 사상」, 『문학의 전진』, 1950.8; 재수록 『현대문학비평자료집』 1, 이선영 · 김병민 · 김재용 편, 서울: 태학사, 1993.

유항림, 「진두평」, 『유항림 단편집』, 평양: 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58.

이원조, 「영웅형상화 문제에 대하여」, 『인민』 2월호, 평양: 민주조선사, 1952.2.

한설야 외, 『영웅들의 이야기』, 평양: 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55.

한설야 외, 『영웅들의 전투기』 1, 문화전선사, 1950.8.25.

한설야 외, 『영웅들의 전투기』 2, 문화전선사, 1950.9.13.

한설야, 「김일성 장군과 문학예술」, 『문학예술』 4월호, 1952.05.05.; 재수록 『한설야 선집 14: 수필』, 평양: 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60.

한효, 「자연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에 있어서의 조선문학」 1, 『문학예술』, 제6권 제1호, 1953.1.

한효, 「자연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에 있어서의 조선문학」 3, 『문학예술』, 제6권 제3호, 1953.3.
「김일성장군의 영웅적 빨치산 투쟁」, 평양: 민족보위성 문화훈련국, 1949.12.
「물의를 일으킨 장르문제-"진두평" 합평회」, 『문학예술』 9월호, 1952.9.20.
「영웅형상화에 대한 문제-문예총 영웅형상화에 대한 연구회에서」, 『로동신문』, 1951.10.29.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영웅들이 싸운 것처럼 적과 싸우자」, 조선인민군 총정치국, 1951.5.
「자연주의적 잔재-현덕 작 "첫 전투에서"에 대하여」, 『문학예술』 1월호, 1953.1.

2. 2차 자료

김동길, 「휴전협상에서 북・중・소 3국의 태도 변화 및 결과」, 『한국과 국제정치』, 제35권 제3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19.
박동찬 편저, 『한권으로 읽는 6.25전쟁』,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6.
배개화, 「한국전쟁기 북한 문학의 '애국주의' 형상화 논쟁」, 『민족문학사연구』 73, 민족문학사연구학회, 2020.08.
배개화, 「한국전쟁 동안의 현덕과 그의 소설」, 『한국현대문학연구』 61, 한국현대문학회, 2020.08.
이철주, 『북의 예술인』, 계몽사, 1966.
신형기, 「유항림과 절망의 존재론」, 『상허학보』 23, 2008.
정주아, 「도착된 순정과 불행한 의식; 유항림의 해방 이후 소설과 작가 의식의 일관성」, 『현대문학의 연구』 53, 2014.6.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당력사연구소, 『조선로동당략사』,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9.

<Abstract>

Controvery over the Genre of Yu Hang-lim's “Jin Du Pyeong” during the Korean War, Is It a Short Story or a Real Story of Battle?

Bae, Gae-hwa

In August 1951, Yu Hang-lim published a short story about one of the Heroes of the Republic, “Jin Du Pyeong.” Regarding the story, An Ham-kwang said, in a literary review on 2 January 1951, that “Jin Du Pyeong” was a ‘real story of the battle (Jeontu silgi)’ that well portrays the hero of the republic. On the contrary, Yi Won-jo classified “Jin Du Pyeong” as a short story (soseol) in a review titled “On the Literary Figuration of a Hero” in February 1952. The disagreement of these two critiques led to a debate over which genre “Jin Do Pyeong” belonged to. In July, controversy by the Korean Federation of Literature and Arts [KFLA] was held on the issue of whether “Jin Du Pyeong” was a real story or a short story. At this debate, the KFLA’s leading writers Yi Tae-jun and Kim Nam-cheon concluded that “Jin Du Pyeong” was a short story, although it had features of biography and reportage. Nevertheless, in November, Eom Ho-seok criticized Yi Won-jo for spreading the naturalist literary trend to the KFLA writers on the grounds that Yi reviewed “Jin Du Pyeong” as a short story rather than a real story. Then, on December 15th, at the 5th plenum of the Korean Workers' Party [KWP], Kim Il-sung purged Park Heon-young, Vice Chairman of the KWP, for being responsible for introducing the reactionary ideas of

American invaders into the Party. Kim Il-sung followed this by also purging Park Heon-young affiliated writer Yi Won-jo and others for producing what he thought were naturalist works that undermined North Korean people's dedication to victory and for the errors that promoted sectarianism within the KWP and KFLA. In order to rationalize these purges, Han Hyo, in his January 1953 review of "Korean Literature in the Struggle with Naturalism," criticized Yi Won-jo for promoting the creation of naturalist work by distorting the genre of "Jin Du Pyeong" into realist literature. And Han concluded that Yi was a spy of US imperialism who had penetrated the ideological front of North Korea. However, the story was included in *A Collection of Yu Hang-lim's Short Stories* in 1958, and being classified a short novel in *the History of North Korean Literature[Bukhan munhaksa]* in 1994. These clearly demonstrated that "Jin Du Pyeong" was used by Kim Il-sung as means of purging Park Heon-young and his affiliated writers from the KWP and the KFLA.

Key words: Yi Won-jo, Yu Hang-lim, Jin Du-pyeong, genre, short story, real story of battle, Korean War, purge

투 고 일 : 2021년 2월 22일 심 사 일 : 2021년 2월 23일–3월 6일
게재확정일 : 2021년 3월 11일 수정마감일 : 2021년 3월 23일